

# 특검 싸고 대립각... “누가 죽나 봅시다” 책상 내리친 김한길 대표

고성 오간 여야 4자회담 또 결렬

여 “특검은 안 돼” 야 “특검 수용해야 의사일정 재개”  
황우여 “내일 다른 얘기할것” vs 김한길 “갈길 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간 '4자 회담'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3일 오전 10시 다시 회담을 열어 의견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여야의 지도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 국회 정상화 방안, 새해 예산안 처리 방안, 정치개혁특위 가동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황우여 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내일은 다른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고, 김한길 대표는 “갈 길 멀지만, 내일 얘기해보겠다”고 각각 말했다.

1시간 15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은 한때 고성이가 오가는 등 다소 격양된 분위기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인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해야 국회 의사일정에 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충돌은 회담 시작 1시간여 후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하는 상태에서 김한길 대표가 “왜 자기들의 주장만 하면서 예산 얘기만 하느냐”고 새누리당 측에 언성을 높이며 시작됐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가 “예산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대표는 “누구는 국민 생각 안 하나”라고 큰소리로 맞섰다.

나아가 김 대표는 흥분한 어조로 “나 김한길이 관둬도 좋다 이거야. 누가 죽나 한번 봅시다” 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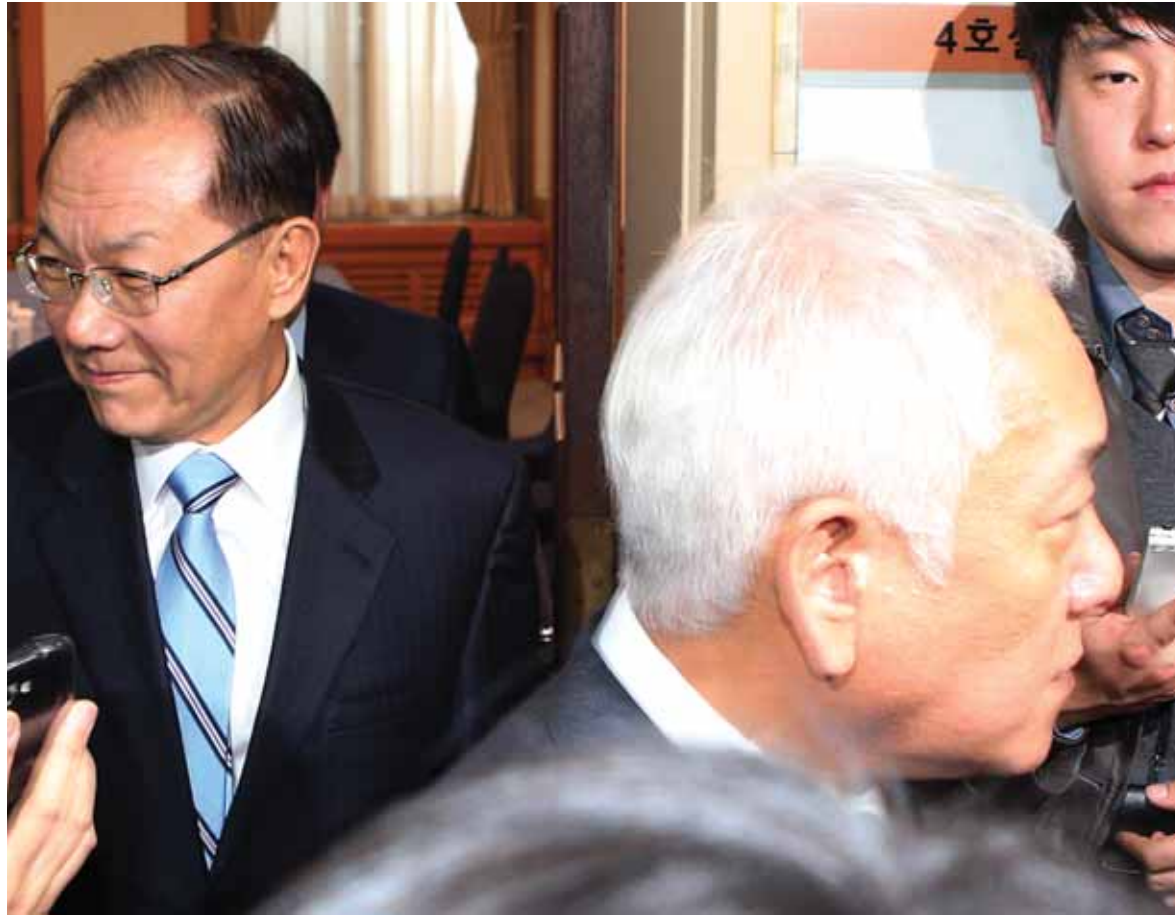
책상을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 회담에 따라 새누리당은 애초 이날 계획했던 새해 예산안 단독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이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이지만 대화 제의를 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회의도 개의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여야 지도부가 다시 만나기로 했지



“내일 다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앞)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 '4자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양 측은 3일 오전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연합뉴스

만, 협상의 열쇠인 특검 도입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서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3일에도 회담이 결렬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28일 강 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반발해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 의장이 당시 야당의 무제한 토론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법 106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중단했고 이어 의원총회에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 예산안 처리 11년째 법정시한 넘겨

국회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몰려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올해로 11년째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어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가 석 달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지난 28일 단독 처리하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예산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국회가 이처럼 새해 예산안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뒤늦게라도 쟁점을 타결,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속도를 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강경 대치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처리는 해마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예산안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예정위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영호남 의원들 '동서화합포럼' 출범



이병석 국회 부의장(오른쪽 네번째)이 2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전·경·북 국회의원 화합포럼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오른쪽 세번째)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정희·김대중 생가 방문 국민대통합특위 설치 검토

88 고속도로 광주~대구 구간 확장 조기 완공 지원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과 호남지역 의원들이 '동서화합포럼'(이하 포럼)을 만들어 양 지역의 교류 및 화합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이윤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게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당 호남 의원들과 새누리당의 영남 의원들이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갖고 양 지역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의 모임은 지역 갈등을 비롯한 이념·세대·계층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덧발'에서부터 변화와 화합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첫 만남에는 민주당 김성곤·이낙연·박지원·주승용·이윤석·김영록·김승남·황주홍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들과 새누리당 이철우·김종태·박명재·이완영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에는 향후 다른 전·경·북 출신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내년 1월 첫 회의를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3월로 예정된 3번째 회의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포럼은 또 영·호남을 연결하는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광주~대구 구간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8올림픽고속도로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약 5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렇게 서로 교류가 부족하니 마음이 더 멀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장도 “경북·전남 지역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중핵이자 영·호남 지역 대결의 거점”이라며 “그럼에도 동서 간 소통과 연결고리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대통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서화합이자 동서소통”이라며 “오늘 만남이 화합을 더욱 다지는 소중한 계기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당 의원들은 이외에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중두



샌드위치 대한민국 맞네!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llanam

## 아이 낳기 좋은 전남

아기 탄생의 울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의  
고동 소리입니다.

전라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